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첫걸음 카카오페이와 함께하세요!



카카오톡 안에 있어 쉽고 편리한 카카오페이를 '기탁금'을 기탁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킵니다.



EVENT 카카오페이를 쉽게 기탁하세요!

카카오페이를 기탁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카카오프렌즈 얼굴 쿠션과 머그컵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2016. 1.15,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 안내
경품 : 카카오프렌즈 얼굴 쿠션 50개, 머그컵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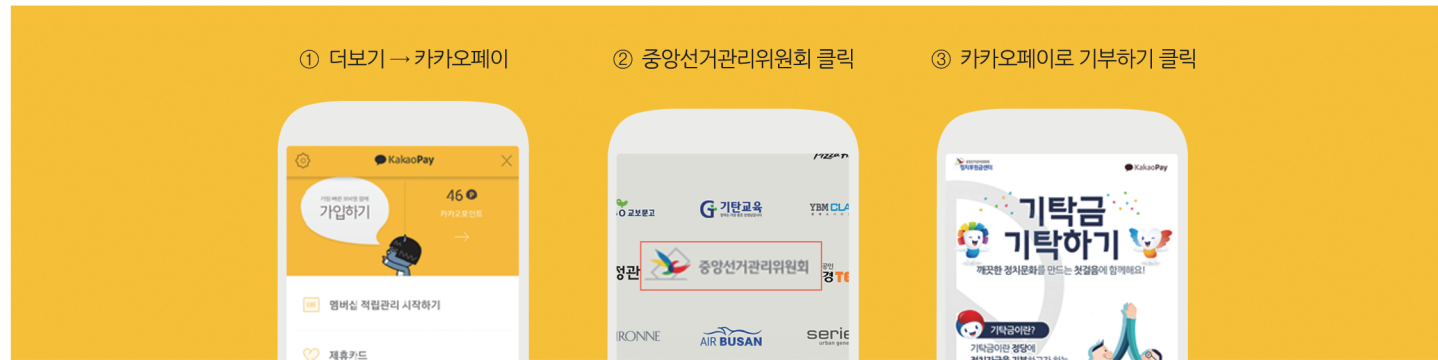
카카오프렌즈 얼굴 쿠션 50개



카카오프렌즈 머그컵 50개

Tip 카카오페이를 기탁하는 방법

카카오톡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클릭 > 카카오페이를 기부하기 클릭



What 기탁금이 궁금하다면?

-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 기탁금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금 관련문의**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문의전화 02-523-6483
-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 기탁한도액**
개인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Beautiful day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쯤이야

일상이 정치다

황교익의 '맛있는 정치'

선택할 수 있는 것

'달바보가 그랬어'의 그림 에세이





Beautiful Day

- 발행 일 | 2015. 12. 07. ● 발행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작기획 | 미디어과 ● 구독문의 | 02-507-4351, nec863@korea.kr
- Beautiful 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eautiful Day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불안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격월로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 COVER STORY | 기획 김지덕 기자(WE MEDIA), 사진 박우진(키메라 스튜디오), 모델 심현민(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헤어&메이크업 엔플로에(02-517-9111), 촬영협조 지복득마루(02-576-7736)

CONTENTS

03

HOT ISSUE

소셜미디어 홍보 트리플 크라운 달성 스토리를 입은 소셜 콘텐츠로 통하다

04

POWER INTERVIEW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가는 사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심현민 주무관

06

연애와 정치②

정치도 연애처럼,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08

독자마당 댓글을 만나다

09

정치후원금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기' 캠페인

10

여성과 선거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 '저넷 랭킨'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봉에 서다

12

영화 속 선거⑪

영화 <밀크(Milk, 2008)> 당신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14

역사 속 민주주의②

조선시대 삼사(三司)제도 비판을 외면하는 권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16

정치후원금

인문학, 정치후원금을 말하다 정치후원금은 양심후원금이다

20

카툰

정치후원금 서유기

21

요리와 선거②

맛있는 정치를 부탁해 일상이 정치다

22

시와 선거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23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Beautiful Day

24

딸바보가 그랬어 선택할 수 있는 것

딸바보 아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26

오늘의 선거역사⑩

1984 8월 22일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력을 잃은 선거



스토리를 입은 소셜 콘텐츠로 통하다

소셜미디어 홍보 트리플 크라운 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가는 사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심현민 주무관

일과 개인적인 삶 모두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만큼 멋진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심현민 주무관은 매일이 행복하다. 나랏일을 한다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한편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도 계속해나가고 있다.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심현민 주무관을 탐구해보자.

KEYWORD 1 커리어 :

공정한 선거를 위한 뜨거운 노력

정치환경 변화의 새로운 신호탄이 터졌다. 지난 7월, 총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며 유권자에게는 혼란을 주고 선거관리에도 차질을 준 선거구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첫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에 대한 높은 열망을 증명하듯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뭉친 선거구획정위원회 직원 전원일 '워커홀릭'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을 만큼 퇴근,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현민 주무관도 바로 그중 한 사람이다. 시크한 인상과 달리 그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특히 '침묵하는 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로 이야기하라'는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정도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구획정은 한 사람의 유권자인 그녀 자신에게도 몹시 중요한 이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대1로 하라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100개 이상의 현행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어느 하나도 정해 주지 않은 상황.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 이후 거듭된 위원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고 결국



“

시크한 외모와 달리 일에서만큼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심현민 주무관. '침묵하는 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로 이야기하라'는 가치관이 말해주듯 그녀는 천상 공무원이다.

가거나 주말 밤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화려한 골드미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2006년 공직에 임용되어 올해로 딱 10년 차에 접어든 심현민 주무관. 아직도 선거환경의 변화를 읽는 눈과 선거법 지식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며 노력하는 그녀이기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나아가는 그녀의 내일이 기대된다. ㉞

법정제출기한마저 넘기게 된 것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국회 회의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도 적지 않지만 심현민 주무관은 아쉬움보다는 이를 밀거름 삼아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의결정족수 요건, 기관의 진정한 독립성 확보 등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2월 31일이 지나면 현재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는 효력을 잃게 된다. 만약 기한 중 새로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부존재 상태로 인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이미 등록된 사람도 신분이 상실된다. 정치신인은 자신을 알릴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것.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엄청나다.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어 소위 '깜깜이 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예비후보자의 신분상실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 문제,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선거 전반에 걸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일원으로서 그녀의 바람은 이러한 문제와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와 그에 따른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 획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중. 정치권에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심현민 주무관을 비롯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기준 등이 정해지는 대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KEYWORD 2 라이프스타일 :

여자들의 로망, 골드미스 다이어리

심현민 주무관은 어느 곳에 있어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키 170cm에 달하는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에 파격적인 곱슬머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무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워낙 튀는 스타일 이기에 현재 몸담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옷도 모델처럼 멋스럽게 소화해 동료들에게서 '트렌드세터'로도 꼽히는데 그 비결은 밸런스에 있다. 헤어가 튀는 대신 옷은 심플한 실루엣과 디자인을 매치하는 것. 특히 매니시 스타일의 슈트를 즐겨 입는 편. 이목구비가 뚜렷해 메이크업 또한 잡티만 살짝 가리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성격은 외모만큼이나 시원시원하다. 좋고 싫은 것의 구분이 확실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일뿐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는데도 적극적이다. 자기발전을 위해 한 달에 두 권 이상의 책 읽기를 목표로 세워 1년 가까이 지키고 있고, 이 밖에도 콘서트를





정치도 연애편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후 B가 불쑥 “내일 야구 보러 갈래?”라고 물었다. 지구에 막 도착한 화성인이 ‘내일 야구 보러 가자’고 했어도 내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어...? 자기는 야구에 관심 없지 않아?”

“아냐, 나도 예전엔 야구 봤어.”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잠실 야구장에서 계속됐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B는 그 선수와 관련된 정보를 줄줄 읊었다. “저 선수 와이프가 유명한 모델이라며?” “XX가 어제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는 완전 메이저리그 수준이던데?” “○○은 이번 시즌 끝나면 FA 대박 나겠더라.” 1회 초가 끝나기 전에 나는 알아챘다. B는 오늘 나와 야구장에 오기 위해 어젯밤 경기 하이라이트를 챙겨 보고 스포츠 기사를 검색하며 연습을 한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사랑처럼 애뜻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냉철한 전략이 개입된 행동방식에 가깝지만,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전략도 쓸모없이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그가 선수 두 사람을 혼동해서 말했지만 나는 “응응”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설령 두산 베어스의 4번 타자가 박찬호라고 말했더라도 나는 “응응” 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실은 그 노력만으로도 이미 나를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 말고는 그 순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눈 앞의 야구 경기를 건성으로 보았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만큼 온갖 아포리즘이 넘쳐나는 주제도 드물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상대를 이해하고 싶어서 끝없이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역시나 대책 없는 스포츠 팬인 작가 닉 혼비는 “인간은 모두가 하나의 섬이다.”라고 썼다. 제각기 떠 있는 두 섬 사이에 오붓한 다리를 놓는 것이 연애라면, 뿔뿔이 흩어진 여러 섬을 ‘군도’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는 것은 아마도 정치일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사랑처럼 애뜻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냉철한 전략이 개입된 행동방식에 가깝지만,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전략도 쓸모없이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향후 몇 년간을 좌우할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호는 지금 젊은 세대가 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진짜 정책이 된다.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특히 ‘슈퍼갑’이나 ‘헬조선’ 같은 신조어를 둘러싼 설왕설래를 그저 “우리 때는 말이지...” 정도로 접근해서는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슬프지만 사랑에 빠진 우리는 영영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는 대부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의 의미이기 쉽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선거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정치인들이 계속 노력하기를 바란다. 편의점 계산대의 중년 여성을,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학생을, 지친 얼굴로 퇴근하는 회사를, 매일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동의 지향점으로 아우르는 정치가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연애보다 쉬울 리가 없지 않은가. ㉞

어쩌다 보니 나는 야구팬이 되었다. 정말이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고교야구의 열성 팬이던 엄마는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하자 당시 꼬꼬마이던 나를 업고 거의 매일 야구장으로 출근하셨다. 그때의 기억은 편집된 자료 화면처럼 몇몇 장면으로만 남아있다. 나는 종이로 만든 썬캡을 쓰고 빈 관중석 사이를 아장아장 돌아다녔다. 3루 관중석에서 그물망을 붙잡고 그라운드를 내려다보면 캐치볼을 하던 야구선수 아저씨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리고 경기에 정신이 팔린 엄마는 작게 발라낸 전기통닭의 살점을 자꾸만 내 입이 아니라 볼에 갖다 댔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보다 힘이 센 건 물에 젖듯이 천천히 빠져드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눈동자의 점처럼 떼어낼 수가 없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이미 열렬한 야구팬이 되어 있었다. 이젠 생각보다 심각한 얘기다. 만약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야구팬인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월요일과 비 오는 날만 빼고 매일 평균 3시간씩 경기를 하는 스포츠에 일희일비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건 어떤 남자들에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B는 야구는 물론이고 그 어떤 스포츠에도 큰 관심이 없는 남자였다. 사실 무언가에 소리를 지르며 열광하는 모습 자체가 잘 상상이 안 되는, 내가 아는 한은 늘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한동안 경기결과에 화를 냈다가 좋아했다가 흥분했다가 낙담하기를 반복하는 나를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그렇다, 나는 데이트를 하면서 물레 경기 상황을 체크하는 주제에 표정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몰지각한 애인이었던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끊임없는 노력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대체 야구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그 질문을 하는 얼굴에는 비꼬거나 탓하는 기색이라고 없이, 그저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하긴 B의 입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홀딱 반해있는 셈이었다. “음... 그냥 나는 원래 야구를 좋아했어.” 나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좀 바보 같은 대답을 했다. 야구를 왜 좋아하느냐고? 야구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

필진
신윤영
기자

첫눈에 ‘내 맘여느리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면접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잡지 기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엘르>, <더블유>, <인스타일> 등의 잡지를 거치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누구의 맘여느리도 아니다. 연애를 커피에 비유한 책 <연애를 테이크아웃 하다>를 썼다.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국민들이 수상 축하 메시지와 바라는 점을 남겨주셨습니다.”

- RunBal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대단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채널의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축하드려요~
- 아네트**  이렇게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어려운 분야도 쉽게 설명 해 주고,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되고, 더욱더 선거와 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밝은별토링**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블로그 어워드 수상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활동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밍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많은 캠페인과 함께 나누는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하고 배우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명탐정코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방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별빛한스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나 그랬듯 중심을 잡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주세요.
- 매너모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두 행사에 수상하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가능하게 됩니다.
- 그래뮤즈**  많은 기관들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군요. 저도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유용한 선거정보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을 바랄게요!
- 희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며 공감 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네요!
- 레이첼**  SNS를 통해 젊은이들이 좀 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노고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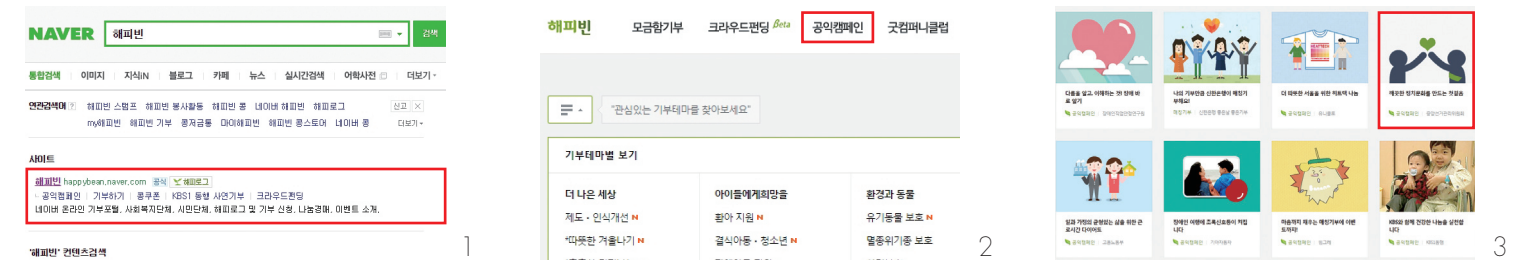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기' 캠페인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기'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에 함께해주세요! 올바른 기부방법을 이해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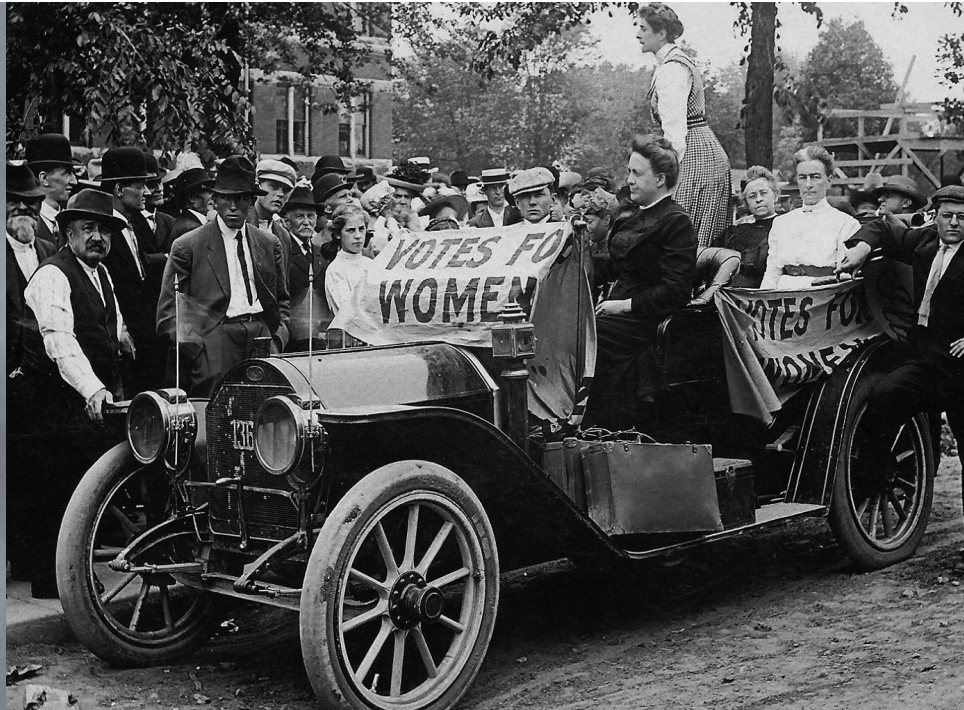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서 '해피빈'을 검색 후 클릭!

'해피빈' 페이지에 접속 후 '공익캠페인' 메뉴 클릭!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첫걸음' 캠페인 클릭!

캠페인 주소 : <http://event.happybean.naver.com/necgive>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 '저넷 랭킨'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봉에서다

미국에서 몬태나 주(State of Montana) 하면 북서부의 캐나다 접경 지역의 시골로 통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무리의 사슴 떼가 살며 사슴과 순록, 영양 등을 합치면 몬태나 전체 인구보다 그 수가 많다고 한다. 회색곰 그리즐리도 무더기로 서식하고 초원을 뛰노는 야생 들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몬태나는 미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백인들의 서부 진출로 삶의 터전이 와해돼 가던 인디언들의 저항으로 카스터 장군이 이끄는 제7기병대가 전멸 당했던 '리틀 빅혼 전투(Battle of the Little Bighorn)'가 바로 몬태나 주에서 벌어졌다. 미국인들에게 깊고도 아픈 충격을 선사했던 이 전투는 이후 수많은 문학 작품과 그림, 영화 등을 통해 재연됐다(실상은 카스터 장군의 치명적인 실수와 오만이 빚어낸 비극이었지만). 리틀 빅혼 전투의 복수극으로 벌어진 사건이 미국 최악의 흑역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운디드 니(Wounded Knee)의 인디언 대학살이었다.

그런데 이 몬태나에서 1916년 11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 리틀 빅혼 전투의 인디언 승리보다 더 진귀한 일대 사건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저넷 랭킨(Jeannette Rankin)'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1880년 학교 교사의 여섯 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만물로서 목장 일을 돕고 집 짓기 같은 어려운 일조차 척척

해낼 만큼 강골이었던 저넷 랭킨은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열렬한 여성해방 운동가로 성장했고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봉에서다. 미국의 타락과 부패가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몬태나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획득한다. 더하여 행운이었던 것은 1914년 11월 몬태나 주가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제한을 앞장서서 풀어 버렸다는 점이었다. 이에 힘입어 저넷 랭킨은 1916년 11월 하원의원 선거에 나선다. 몬태나는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문 주였다.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의 강행군을 마다치 않으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몬태나 주 대법관을 역임하게 될 남동생의 지원 사격 속에 7,500표 이상을 얻음으로써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에 당선된다.

실로 역사적인 일이었으나 그녀의 임기 또한 20세기 초반을 강타한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 태풍의 이름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고립주의를 내세운 미국은 완강하게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버텼으나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고 미국 선적의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자 대독일 전쟁에 참여하라는 여론이 드높아갔다. 마침내 윌슨 대통령이 "민주주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의회에 전쟁 동의를 요청했다. 이때 랭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이것이였다. "최초의 여성 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다."

일찍이 군축을 주장하며 "평화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그녀는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한다.

"내 조국을 지지하기를 바랍니다만 전쟁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 이긴다는 건 지진과 싸워 이긴다는 말처럼 무의미합니다." 상하원 통틀어 그녀를 포함한 56명의 의원이 반대했지만 비난은 랭킨에게만 주로 쏟아졌다. 선구자적인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남성 정치인과 똑같은 사안에 똑같이 행동하더라도 비난의 무게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쏟아지게 돼 있다. 애국심의 파도가 미국 전역을 들끓게 하는 가운데 랭킨은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는다. 심지어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함께 펼친 동료들마저 그녀의 반대가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이라고 비난했으니 그 처지를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랭킨은 1918년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짧은 의원생활을 마감했다. 낙선 후에도 주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던 그녀는 20여 년 뒤 또 한 번 의회에 입성한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과 전쟁은 또 한 번 기묘하게 얽힌다. 의회에 재입성한 해는 1940년. 바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 바로 1년 전이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영국은 온 유럽 대륙을 집어삼킨 나치 독일에 맞서 힘겹게 투쟁 중이었고 미국은 심정적으로는 영국 편이었으나 참전을 미루고 있었다. 미국의 미적거림을 일거에 타파해 버린 사건이 바로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습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일본과 그 동맹국 독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자국의 영토가 기습당하고 태평양 함대가 과멸적 타격을 입었으며 수천 명의 미국인이 사상한 상황에서 미국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상원의원 82명 전원이 전쟁에 찬성했고 289명의 하원의원들도 만장일치 찬성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만장일치 찬성의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하원의원들에게는 중대한 결림돌이 있었다. 바로 저넷 랭킨 의원이었다. "저 사람 1918년에도 반대표 던졌었는데." 의원들은 저넷 랭킨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권했다. 그러나 27년 전 서른여덟의 완강한 반전 평화주의자는 예수를 넘어서도 전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여성인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애국주의가 폭발하고 군에 입대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장사진을 치던 상황에서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성난 군중은 의회를 포위한다. 저넷 랭킨은 의회 경비대의 호위를 받고서야 가까스로 의회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반대표로 인해 또 한 번 정치 생명을 단축한다. 1942년 선거에 스스로 출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달픈 평화주의자로서의 운명은 아직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1950년의 한국 전쟁 때도 랭킨은 반전을 외쳤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평화의 플래카드를 놓치지 않았다. 1968년 그녀는 무려 여든 여덟의 나이로 수천 명의 '저넷 랭킨 부대'를 이끌며 반전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때도 그녀는 의회 진출을 고민한다. 시곗발로 '10년만 더 젊었다더라면' 그녀는 3선 하원의원을 노려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육체적 나이가 너무 들어 있었다. 1973년 아흔셋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녀는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평화를 외치는 삶을 살았다. 20세기 미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 저넷 랭킨은 20세기 미국의 전쟁 가운데 굵직한 대문자로 기록되는 네 차례의 전쟁, 즉 1차,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모두 지켜보고 반대했던 평화주의자로서 역사에 남는다. "여성인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전쟁에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고 외치던 쟁쟁한 목소리와 함께. ㉔



“수백 킬로미터의 강행군을 감행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저넷 랭킨은 7,500표 이상을 얻으며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에 당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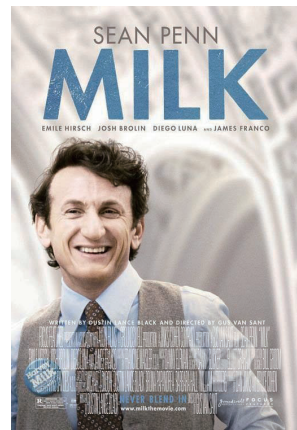
필진 김형민 PD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이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산하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역사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글을 엮어 '그들이 살았던 오늘'의 제목으로 책을 냈다. 현재 sbnsnbc에서 PD로 활동 중이다.

지난 11월 3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됐다. 그의 이름은 재키 비스쿱스키(Jackie Biskupski). 49세의 여성이고 한 아이의 엄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이다. 이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선출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 시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미국에서 동성애자 시장이 선출된 일이 그리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키 비스쿱스키가 시장으로 일하게 될 솔트레이크시티가 '모르몬교'의 성지라는 점은 매우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다. 재키 비스쿱스키가 당선된 지 며칠 후 모르몬교 교단은 지역 교계 지도자들에게 “동성 부부를 배교자로 규정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례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재키 비스쿱스키는 이런 도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 사례에서 한국에 사는 우리는 “과연 동성애자 정치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동성애자 후보가 선거에 나왔던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08년 당시 모 정당의 후보가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로서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떠나 소수정당의 후보에게 관심을 가진 이는 많지 않았다. 앞으로 새로운 동성애자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여당이나 제1야당의 후보로 나오지 않는 이상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재키 비스쿱스키의 사례에서 ‘정치’와 ‘선거’가 갖는 또 다른 본질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재키 비스쿱스키는 자동차 보험업계에서 일하다가 사립탐정 사무소를 차렸던 흥미로운 경력의 소유자다. 당시만 해도 그는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비스쿱스키를 정치로 이끈 계기가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가 도시 내 어느 고등학교에서 꾸려진 성 소수자 클럽을 금지하려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를 각성시켰고, 비스쿱스키는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말하자면 자신과 같은 성 소수자 시민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그녀를 정치로 이끈 것이다. 그 이후 그녀는 1998년 유타 주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됐고, 2015년 시장이 됐다. 비스쿱스키의 각성은 1970년대 미국 최초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인물이자 공개된 동성애자 정치인이었던 하비 밀크의 사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하비 밀크가 없었다면, 아니 그가 있었다고 해도 현실에 각성하지 않았다면 2015년의 재키 비스쿱스키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손 펜이 출연했던 영화 <밀크>는 하비 밀크의 마지막 8년을 그리는 영화다(손 펜은 이 영화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이제 40살 생일을 맞은 하비 밀크의 모습이다. 그는 이날 연인 스콧 스미스(제임스 프랑코)를 만나게 된다. 이전까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비 밀크는 스콧을 통해 새로



영화 <밀크(Milk, 2008)>

당신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운 삶을 꿈꾸게 되고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다. 이때만 해도 이들은 작은 카메라 가게를 하나 열어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가게에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살아야 했던 동성애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된다. 그렇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목격한 하비 밀크는 점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모욕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정치활동에 나선다. 영화가 묘사하는 밀크의 선택이 처음부터 거창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욕과 차별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본질적인 생존을 꿈꾸었고, 이를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밀크의 등장은 아직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미국 사회에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는 직접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고 1977년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으로 당선된다. 그는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동성애자 권리 조례 등을 제정했고, 각종 동성애자 탄압 법안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단지 ‘혐오’라는 개념으로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등장하게 된 계기였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놓인 하비 밀크의 동상에는 당시 그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 한마디가 적혀있다. “나는 운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나의 당선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재키 비스쿱스키와 하비 밀크의 사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와 선거의 본질이란 다음과 같다. 정치란 당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활

동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는 그 꿈을 실현하게 만들어 줄 힘을 얻는 기회라는 것 말이다. 누구나 아는 세상의 진리 중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업에 매진하던 재키 비스쿱스키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삶에 만족하던 하비 밀크 역시 세상이 수많은 ‘가마니’ 중 하나로 보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통해 각성했고, 힘을 얻기 위해 선거에 나섰고, 그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을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와 선거가 이런 본질을 갖는다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는 한 명의 후보자로 대표되는 특정 집단에 힘을 실어주는 기회일 것이다. 그 집단이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일 수도 있고, 후보자가 가진 직업군의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후보자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단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나 집단에 내가 속해있는지 여부에 따라, 혹은 그 단체의 힘이 나의 이익과 얼마나 연결되어있는지에 따라 표를 던지게 될 것이다.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은 이처럼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단지 후보자 개인의 신상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세계와 내가 속한 세계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세계가 아름다워진다면, 나의 세계도 아름다워질까? 미래에 나타날 한국의 동성애자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나라에 사는 동성애자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내 삶도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실제 하비 밀크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당신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⑩

글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조선시대 삼사(三司)제도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권력이 독재로 흐를 경향을 보이면 그를 제지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을 세력이 형성돼야 하며 포폴리즘이나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의 무절제한 욕망에도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며 그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부로 분립되어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며 '만장일치는 무효'라는 유대인들의 오랜 지혜 역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의 반영일 것이다.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비단 근대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봉건 왕국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대표적인 모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 맞겠다. 바로 삼사(三司)제도가 그러하다. 이 삼사는 한국사 시험의 단골 문제다. 같은 이름을 가진 고려시대 관청은

재정의 출납을 맡은 회계기관이었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전혀 다른 임무를 지닌 언론 기관인 세 관청을 가리키는 말로 바뀐다. 이 세 관청의 이름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다.

삼사의 역할

먼저 사헌부는 일종의 감찰기관이다. 오늘날의 감사원이나 검찰청이라고 할까. 관원들의 기강을 살피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나 문제점을 '매의 눈'으로 감찰하고 허물이 발견되면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임무인 기관이었다. 역사상 굴직한 인물들이 이 직을 거쳐 갔다.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황희 정승은 대사헌 때에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다. 세종실록에는 그가 승려로부터 황금 뇌물을 받아 '황금 대사헌'으로 기록된 사실이 남아 있다. 정통 성리학적 입장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중종조의 인물 조광조가 나이

38세에 대사헌이 됐을 때 훈구파 등 조광조의 정적은 공포에 떨었다. "저 등 통성 없는 인물이 대사헌이라니!" 또 우리나라 돈 5천원짜리의 모델인 이윤곡 선생도 대사헌 경험이 있었다. 이때 윤곡은 "대사헌은 나라의 중요한 직임(職任)으로서,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데 그 책임이 있다."면서 옛 문헌에 자기 의견을 보태 풍속 교정 강령을 써서 붙이기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간원은 글자 그대로 임금에게 말하는, 즉 간(諫)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임금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거나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임금에게 이를 바로잡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사극 같은 데에서 줄지어 엮드려 "아니됩니다!"를 부르짖는 신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주축이 사간원과 사헌부다. 사간원의 관리를 간관(諫官)이라고 부르고, 사헌부의 관리를 줄여 대관(臺官)이라 부르는데 이 둘을 합쳐 대간이라고도 한다. 이 대간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보려고 하면 대번에 눈 부릅뜨고 "아니됩니다." 아니면 "대감이 이럴 수 있으시옵니까." 호통을 쳐대니 말이다. 여기에 옥당(玉堂)이라 불리우는 홍문관이 추가된다.

쟁을 필요한 존재로 인정했고, 이들의 언론(言路)을 막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삼았다. 조선 성종 때 무관이었던 박원종을 승지로 임명했을 때, 이에 반발하여 올린 홍문관 부제학 안침의 상소는 언론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무릇 의정부와 육조는 전하의 팔과 다리 같은 것이고, 대간은 전하의 귀와 눈과 같은 것이며, 공의(公議)는 나라의 원기(元氣)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팔과 다리를 버려두고 귀와 눈을 막으며 원기를 끊어버리고서 원수(元首)가 홀로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한국언론학보 53호, 조선왕조의 언론윤리 체계에 관한 시론-이규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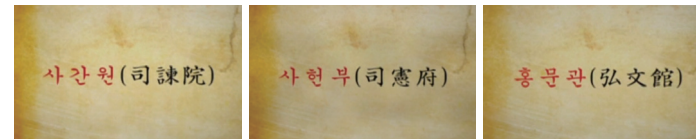
비판을 외면하는 권력은 멸망한다



귀와 눈을 막으면 원기가 끊긴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아무리 신랄하고 시쳇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간쟁이라 할지라도 쉽게 처벌하지 못했고 그 발언들의 원천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 "누구에게서 그 말을 들었는가?"라고 캐묻기도 어려웠다. 조선왕조는 그런 공론장을 제도적으로 갖춘 나라였고, 임금과 권신들 모두 간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비판에 귀를 막으면서도 그 자체를 폐하자고 나선 일은 조선 역사에 드물었다. 굳이 예외라면 "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비단 근대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봉건 왕국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삼사제도가 그러하다.**”

홍문관은 조선 세종 때 별처럼 빛나는 학사들을 모아 국책을 연구하고 한글을 만들어냈던 국왕의 자문 기관 집현전의 후신이다. 단종 복위를 시도한 집현전 학사들의 옥사 후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고 성종이 홍문관으로 부활시켰으나, 이번엔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연산군에 의해 문이 닫히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홍문관은 중종반정 이후 복구돼 이후 내내 '언론 삼사'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 수장인 대제학의 경우 "대제학 하나와 열 정승 안 바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문과 명망이 드높은 이에게 제수되는 것이 관례였고,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이나 사간원의 대표인 대사간보다 품계가 높았다. 홍문관은 사



헌부와 사간원이 간쟁을 하다가 여의치 않을 때 최후에 가담하여 삼사합사(三司合司)로 나서는 일종의 '뺨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세 관청의 관원들이 일제히 엮드려 아니됩니다를 합창할 경우 그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정승 판서는 물론이고 임금에게까지도 거침없이 들이대는 그들의 말(言)은 실로 권력자에게는 귀찮은 침범콜이었고 거추장스러운 모래주머니였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 왕조의 지배층은 대체로 이들의 간

간 역시 신하인데 꼭 임금으로 하여금 그 말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권력이 위에 있지 않고 대간에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근원은 권력이 아래로 옮겨지는 데 있다."라고 일갈한 연산군 정도랄까. 물론 삼사의 폐단도 없지 않았다. 삼사 간에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듯 목청을 돋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적지 않았고,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거나 그릇된 인식 위에서 공론을 오도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대간의 자리를 보장된 출세 코스로 이용한 경우도 흔했다. 그러나 이 삼사의 비판적 기능이 와해됐던 세도 정치 시대가 결국 조선을 빈털터리 속 빈 강정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망국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한다면 비

슷한 시기 태평양 건너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했던 말의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언론이 막힌 정부는 눈과 귀를 들어 막힌 사람처럼 어둠 속을 더듬거리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비판을 외면하는 권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면면히 유지돼 온 삼사제도가 주는 교훈이다. ㉞

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인문학, 정치후원금을 말하다’ 특별기고 제1화 정치후원금은 양심후원금이다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대이다. 그런데 국민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representative democracy)라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한다. 물론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적인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대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과연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대’라고 부르지만 ‘군주시대’의 악습이 재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러한가? 민주나 군주냐는 결국 구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가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를 시행하더라도 투표만 끝나면 위정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군주주의의 악습이 재현될 것이며, 군주주의를 시행하더라도 군주가 세종대왕처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구현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군주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주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각성해야 한다.

권리에 대한 책임

군주시대에는 군주에게 주권이 있었지만 민주시대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 우선 민주주의의 참 맛을 아는 정치인을 뽑을 안목을 키워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국민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국민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는”(『대학大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은 자금이 없는 정치활동을 하기 힘든 시대이다. 아무리 이상이 좋더라도 정치활동 자금이 없다면 그 이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니 진정한 민주시대를 열고자 하는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정치후원금 등의 방법을 통해 정치인들이 자금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 정치활동을 펼침에 힘을 얻도록 해야 하며, 검은 손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올바른 구현은 단순히 투표장에서 정치인을 뽑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권리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정치인의 정계 진출을 막고,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양심적인 정치인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등한시하면서 단순히 정치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성숙한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백성이 과연 목자(牧者)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목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원목原牧』)라고 외쳤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㉞

글 윤홍식(홍익학당, 봉황동래 대표)

<인문학, 정치후원금을 말하다>
2, 3화가 궁금하다면
스마트폰으로
먼저 읽어보세요.



2화(정병호 작가)



3화(김시현 작가)



인문학, 정치후원금을 말하다
톡 (Tok), 톡 (Talk)

「민주주의의 올바른 구현은 정치인을 뽑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양심적인 정치인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임무이다.”

윤홍식
▶ 홍익학당, 봉황동래 대표
▶ 논어 양심을 밝히는 길 저자
▶ 중용, 양심경의 지혜 저자

성숙한 정치와 알스트로메리아 알스트로메리아를 아시나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그녀의 명함에는 플로리스트(Florist)라 적혀 있다. 플로리스트란 플라워(Flower)와 아티스트(Artist)의 합성어 혹은 플로스(flos)와 전문가를 나타내는 접미사인 이스트(ist)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 딱 맞다. 꽃을 배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간 그녀는 왕립원예협회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식물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운동 ‘내셔널 가든 스킴(The National Garden Scheme)’ 활동 등에 열심히 참가했다. 세상을 뜨긴 했지만,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의 쇼에서 꽃장식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그런 그녀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귀국해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를 연 것이다. 어느 날, 그녀가 꽃 하나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 당연히 알력이 없었다. 우물거리는 내게 그녀가 말했다. “대부분은 몰라. 그런데 이 꽃 이름이 뭐냐고 묻는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나는 자신이 구입하는 꽃 이름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런 고객들에게 꽃을 팔아야 한다는 게 힘들어.” 그녀가 들고 있던 꽃의 이름은 알스트로메리아(Alstromeria)였다. 이맘때만 되면 그녀의 꽃집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것이 11월의 일이기도 했거니와, 알스트로메리아가 11월이 제철인 귀한 꽃이기 때문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는 길목, 세상의 만물이 움츠러드는 이때 만날 수 있는 꽃은 그리 많지 않다. 개망초, 금계국, 루드베키아, 산국, 까마중, 해국 등이 겨울 초입에 핀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서 알스트로메리아는 가장 화려한 꽃 중의 꽃이다. 모든 꽃이 흐드러지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시기를 마다하고, 겨울 초입에 꽃을 피운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한 자연의 법칙이라면, 특히 알스트로메리아의 아름다운 자태는 꽃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아름답게 진화했다는 설을 믿게끔 한다.

속 깊은 정치에 대한 기대와 알스트로메리아의 관계

주 자생지가 남아메리카인 알스트로메리아는 언뜻 백합이나 수선화와 빼닮아 ‘잉카의 백합’ 혹은 ‘페루 백합’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아리아리한 여인을 닮은 형태에 꽃잎의 끝 부분이 수채화의 붓 터치처럼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생육이 강해서 땅의 에너지가 강한 곳이라 알스트로메리아를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습지, 사막, 열대우림, 고지대까지, 일반 꽃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했다. 남아메리카에서 피던 꽃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게 된 사연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18세기 남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 스웨덴 선교사가 타향 생활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알스트로메리아를 보면서 이겨냈고, 귀국할 때까지 그 알스트로메리아가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이 선교사의 이름이 바로 ‘알스트로메리아’였다. 한편, 식물의 학명을 라틴어 속명과 종명, 그리고 명명자로 표시하는 이명법(binomial

nomenclature)을 최초로 제창한 칼 폰 린네의 친구이자 탐험가였던 스웨덴 남작 클라우스 폰 알스트로메르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가 1753년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면서 가져간 이 씨앗이 퍼져나갔다는 설이다. 선교사든 남작이든, 어쨌든 알스트로메리아의 이름은 스웨덴 사람의 그것이지만, 이 꽃은 유독 네덜란드에서 사랑을 받았다. 예로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꽃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알스트로메리아가 유입되기 전인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툴립 한 뿌리가 집 세 체의 가격으로 거래할 정도로 툴립의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물론 ‘툴립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에 길이 남은 이 사건은 가격 폭락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때어난 툴립 열풍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눈여겨 본 꽃이 바로 알스트로메리아였다. 화훼 산업의 최강국인 네덜란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알스트로메리아를 재배하고 있다.

몇 년 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원은 11월의 꽃으로 알스트로메리아를 선정한 바 있다. 화이트스마일, 화이트크라운, 해피알스, 씨엔알스호프, 하늬바람 등 다섯 개의 품종이 개발, 생산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아무리 공식적으로 알스트로메리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린다고 해도, 결국은 꽃을 꽃이라 불러 주고 곁에 두는 건 사람들의 몫이다. 어떤 훌륭한 정책도 정작 국민들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듯 말이다. 보도 이후 알스트로메리아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판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궁금했던 차, 얼마 전 예식장에서 이 꽃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알스트로메리아의 꽃말은 새로운 만남, 헌신, 배려, 그리고 우정이다. 남남이었던 남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는, 우정과 같은 기나긴 사랑을 약속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꽃이다. 이 꽃말은 다른 아닌 꽃의 생김새에서 비롯되었다. 알스트로메리아의 잎은 태생적으로 뒤틀려서 자라기 때문에 잎의 뒷면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 이 독특한 잎은 왜곡과 뒤틀림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성장할 수 있고, 비로소 우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의 꽃말로 발전되었다. 알스트로메리아의 의미심장한 꽃말은 비단 개인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헌신과 배려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믿음에 근거한 우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요즘 유권자들이 정치인 혹은 정치에 가장 바라는 기본적인 미덕이 아닐까? 결혼이 ‘나의 백년대계였다면, 정치는 ‘우리’의 백년대계일 테니 말이다.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삶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서로만을 바라보는 핑크빛 사랑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정 같은 사랑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성숙한 정치 역시 이 꽃말처럼 내면의 단점과 아픔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울겨울 초입, 화려함 이전에 감추어진 속 깊은 정치에 대한 기대는 유난히 알스트로메리아를 곁에 두고 싶도록 만든다. ㉟ 글 윤혜정(배자+퍼처디테터)



10월 4일 일요일, 중앙아시아의 작지만 큰 나라,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임기 5년의 국회의원 12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렸다. 키르기스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이 선거는 축제가 되었다. 이 '축제'를 만들기까지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키르기스공화국 전국의 2,338개 투표소를 움직이는 것! 10월 4일 총선을 선거자동화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치러야 한다. 도움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처음 하는 일이다. 키르기스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CEC)내 임시 사무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이곳의 열악한 통신망과의 전쟁이고, 같이 일하기 만만치 않은 현지인들의 의식과의 전쟁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된 지 24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 사회의 중추가 되는 이들은 구 소련 시절 교육을 받았으며, 사람의 DNA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소련의 일부였던 이곳엔 레닌과 알라가 동시대를 살고 있다. 대부분 직위에 상관없이 소련(?)식대로 여기까지만 내 일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다.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우선이다. 자신들은 엄격한 업무분장에 따른 아주 좁은 범위의 일만 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으니 그걸로 끝' 이런 식이다. 같이 업무를 하려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끝까지 채근을 해야 일이 간신히 완수된다.

대체로 순박한 키르기스인들이지만 마음속엔 불씨가 있다. 이 불씨는 기쁨과 만나면 축제로, 불의와 만나면 혁명의 불꽃으로 번진다. 키르기스공화국

은 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후 2005년, 2010년 각각 부정선거와 대통령 독재의 움직임으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민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 정국이 안정되지 못한 편이다.

내 현지 친구 하나도 5년 전 혁명 때 친척 한 명이 실종되었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온 집안이 발각 뒤집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들 모두 혁명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부족으로 민주주의가 아직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013년 A-WEB 창립총회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접한 압드라이모프 CEC 위원장이 아탐바예프 대통령에게 한국 선거 시스템 도입을 건의한 것이 이번 사업의 씨앗이 되었다.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선거 자동화 장비 원조를 끊임없이 요청하였고 그 결과 코이카와 A-WEB, 한국 선관위의 합작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연초부터 한국의 IT 전문가가 파견되었고 CEC내 전산실을 구축했다. 또한 수차례 지역선거구위원회(TEC)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된 교육과 모의시험이 무색하게 선거 D-12까지도 광학판독개표기를 제대로

사용해서 모의투표결과를 전송한 투표소는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물론 통신망이 열악한 원인이 있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예산 부족'이다. 실제 선거가 진행될 투표구선거위원회(PEC)에서도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담당자들도 바뀌기 일쑤였다. CEC직원들도 처음에는 그다지 의욕적이지는 않아 보였다. 모든 일이 입금을 확인하고 이루어졌다. 국제기구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다

'키르기스공화국 편' 우리들의 사업 원정기

고 CEC 교육부서에서는 한시가 급한 마당에 손을 놓고 있었다. 개표기 사용을 돕기 위해 CEC 내 유선전화로 핫라인도 개설했으나 각 투표소에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문제가 있어도 전화를 꺼려했다.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분당 6송(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하여 돈이 부족할 경우, 번호를 남기면 우리 측에서 전화하겠다는 말도 추가적으로 안내했다. 그래도 부담된다고 해서 현지 통신사 별로 각 두 대씩, 총 6대의 휴대전화를

핫라인으로 개통했다. 같은 통신사끼리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고, 휴대전화 간 통화요금은 분당 1송이다. 그전까지는 문제가 있어도 연락이 안 오는 것이 문제였다. 핫라인으로 먼저 전화를 해야 문제가 있다고 그제야 실토한다. 또한 한반도 전체 면적의 80%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데, 남-북 지역 차가 심하다. 오쉬, 잘랄아바드와 같은 남쪽 지역은 산간지대인데 사투리가 심해 키르기스인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다고 한다. 현지인들로 구성된 핫라인 직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남부 지역은 공평하게 나누어 관리했다.

선거일 D-10.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개표기에서 데이터 전송이 안 된단다. 알고 보니 통신이 끊겼다. CEC에서 선불제로 계약했던 통신사에서 약정금액을 초과했다고 네트워크를 끊어버린 것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사태가 만약 선거 당일엔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불행 중 다행히(?) 선거 전에 벌어져 당장 후불제로 바꾸라고 CEC에 성화를 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각 통신사에 정밀 관련 편지가 나갔는지도 일일이 확인을 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우리 ODA사업 지원단 키르기스공화국 선거지원팀은 돌아가며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죽고 일어나 영감(?)을 얻어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CEC에 새벽 같이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선거일이 다가오며 '투표시작 전 개표기의 상태가 이래야 한다, 이런 화면이 떠야 한다'라는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서 공식문서로 보냈다. D-day가 다가오며 CEC 내부에도 조급씩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투표용지가 있는 2층에는 무장군인 두 명이 배치되었다. 검은 빵오자에 가죽잠바를 입은 국가안전위원회 직원들도 보였다. 선거 2일 전 부총리가 방문한 날에는 CEC 사방에 군인들이 뺨뺨이 배치되었다.

우리 지원단은 매일 개표기 테스트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서 CEC 직원들에 공유하고 TEC에 연락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다. 개표기 사용이 잘 안 되는 지역을 끝까지 공략했다. D-30부터는 매일 오전 9시 CEC 부위원장 이하 담당자들과 "끝장회의"를 하며 사태를 헤쳐나갔다. 처음에는 현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던 CEC 직원들도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꿈쩍도 안 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개표기 사용 테스트 참여도 또한 점차 증가했다. D-12에 절반이 간신히 넘는 투표소가 참가했는데 참여도가 61%, 77%, 88% 나날이 증가해서 D-3에는 99%, D-2까지 통신망이 없거나 약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100%를 달성했다.

대망의 선거일! 오전 8시부터 핫라인 전화기에 불이 난다. 차라리 다행이다.

연락을 한다는 건 개표기를 개시했고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이니까. 운영 미숙에서 온 단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격동의 오전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투표를 마감하는 저녁 8시가 되었다. 연습 막바지 때처럼 데이터가 잘 와야 할 텐데.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EMS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감동의 순간들! 투표 종료 2시간 내로 전체의 95%의 데이터가 왔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여주는 그

래프가 쑥쑥 올라간다! 선거 결과는 성공적. 음영지역 16개의 투표소를 제외하고 키르기스공화국 전역의 2,322개 투표소에서 개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결과적으로 99.3%의 데이터 전송률을 이루었다. CEC에서 공표한 대로 그날 저녁 10시 위원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CEC 4층 기자회견실은 국내외 기자, 참관단, 위원들, 내부 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렀다는 확신을 갖고 CEC 위원장은 상세히 브리핑을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인정한 투명한 선거

과연 올라 싶은 선거 다음날이 왔다.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은 "10월 5일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라고 했다. 우리 모두 그랬다. 키르기스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 전역에 선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국민들도 모두 이에 인식을 같이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타자 사일루'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졌다고 인정했다. 127년 역사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서도 키르기스공화국은 이제 중앙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간 여행 프로그램 말고는 국내 언론사에서 키르기스공화국에 취재를 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MBC, 동아일보, 서울신문에서 기자들이 선거 취재차 날아왔다. 날카로운 기자들이 7일 걸리던 개표 두 시간 만에 똑딱...선거현류의 힘, '전자선거시스템 개표 기술, 첫 해의 수출 개발원조 모델 될 것'이라며 앞다투어 이번 총선과 우리 사업에 대해 보도를 했다.

CEC에서는 한국이 고맙다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3개월 정도만 더 있다 가라고 우리를 붙잡는다. 또한 이번 ODA 사업으로 원조 받은 것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한다. 마지막 평가회의 때 우리가 내일 출국이라고 하니 회의 때 카리스마 넘치던 CEC 부위원장이 애써 눈물을 참는다.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후, CEC와 ODA사업지원단은 서로를 축하했다. 우리가 떠나는 날 CEC 위원장 주재로 감사 리셉션도 열렸다.

한 국가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현지의 조직에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러시아어 전공자로서 전공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내밀한 면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키르기스공화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일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의 의미와 재미를 느꼈다. 이번 사례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

글 이태령(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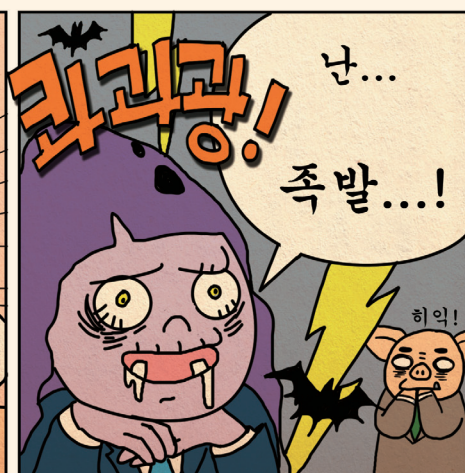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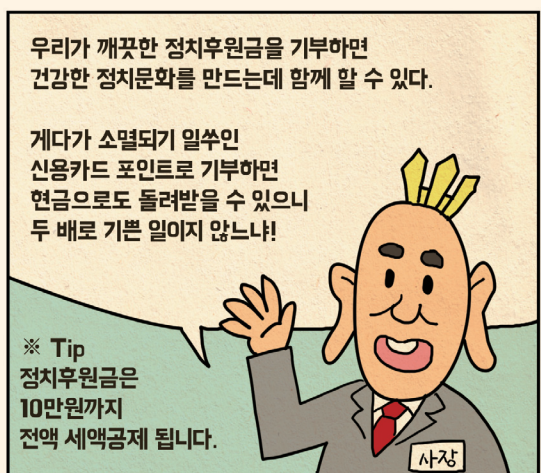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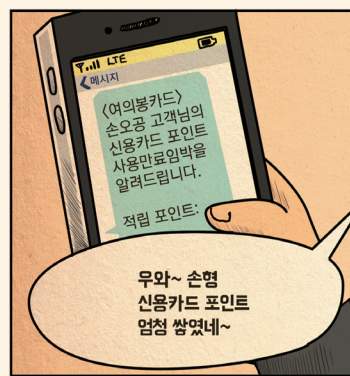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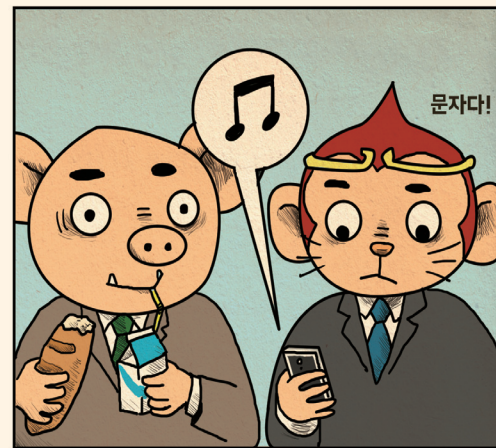
“ 키르기스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선거는 축제와도 같았다. 우리는 키르기스공화국 전국 2,338개 투표소를 움직이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맡아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날을 보내야 했다. 열악한 통신망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의식 또한 큰 애로사항이었다. ”





정치후원금 서유기

글 · 그림 이예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http://www.give.go.kr/>

공포특집 정치후원금 서유기 끝

“맛 칼럼니스트가 왜 정치, 경제, 역사 등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물어 대느냐고요?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요.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고요? 내가요. 맛칼럼니스트는 내가 처음이고, 그러니 내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맛칼럼니스트 맞습니다. 내가 만든 내 직업에 딱지 걸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나도 맥들의 직업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하도 답답하여 SNS에 내지른 말이다. 내가 정치 이야기만 하면 “맛칼럼니스트가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음식 이야기에 웬 정치?” 하고 시비를 건다. 내 머리와 입에서 정치를 떼어내지 못해 난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 시민은 누구든 정치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횡행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위 현장에서 이 말이 구호로 외쳐지면서 우리 귀에 익숙해졌다. 다 아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다. 다 안다? 내가 보기에는, 모른다. 말을 들어 그 문장을 아는 것이지 의미는 모른다. 의미를 모르니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수시로 무시된다. 특정인에게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민주 공화정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위헌이다.

정치란, 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그 원칙은 단순하다. 그 원칙은, 나누기이다. 먹을거리로 보자면,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을 것인가, 누가 좋은 것을 먹고 누가 나쁜 것을 먹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 정치적 결정을 어느 누가 하는가에 따라 정치체제가 나누어진다. 결정을 왕이 혼자서 하면 전제왕권정치이고, 몇몇 영주들이 모여서 하면 봉건정치이고, 사제나 무당이 하면 신권정치이고, 귀족과 부자 등이 조직한 의회에서 하면 귀족계급정치이고... 직업과 학력, 재산, 종교, 성별 등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 하면 민주공화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러니 누구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막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거리가 정치와 관련 없는 듯이 여기는 시민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음식 먹는 데 골치 아픈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 한다. 아니다. 먹을거리만큼 정치에 민감한 것은 없다. 당신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가에 따라 당신 앞의 음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몇 년 전에 논란이

일었던 ‘통 큰’ 시리즈를 예로 들어보겠다.

한국의 먹을거리 유통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유통 합리화를 명목으로 규격화된 대량생산 대량유통 먹을거리를 기획하여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 먹을거리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내놓은 ‘통 큰’ 시리즈 음식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대기업 유통이 주는 값싼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의 그 값싼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순간 소비자는 대량생산-대량유통의 재벌 중심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정치적으로 우파에 들어 신자유주의를 긍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본에 의해 기획되는 먹을거리를 거부하는 소비자도 있다. 이런 소비자는 자신이 먹을 음식이 누구에 의해 생산이 되고 어디에서 왔는지 따진다. 자신이 지불하는 돈이 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잘 전달되는지도 알아본다. 공정무역이나 공정거래니 하는 먹을거리 유통 형태가 이런 것이다. 이런 형태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좌파에 들며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긍정한다고 볼 수 있다.

‘통 큰’ 시리즈의 먹을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여 먹을 것인가 판단하는 일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먹을거리들을 선택하여야 내가 정치적으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문제가 비정치적인 일인 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의 먹을거리 산업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득을 주는 먹을거리 산업에 탈정치적인 포장을 한다. “먹는 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며 변화를 막는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시민의 일상이다. 정치를 왕이나 귀족이 하는 시대와는 다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면 모두 정치를 해야 한다. 매일의 밥상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내 밥상에 왜 이런저런 음식이 올랐는지 정치적으로 따져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바로 시민이기 때문이다. ㉞

글 황교익(맛칼럼니스트)





어린 시절 텔레비전과 학교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캠페인이 열풍이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에 세뇌당했던 나는 그 캠페인의 열성적인 수호자가 됐다. 길에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아주 가끔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죄책감을 느꼈고, 휴지를 쓸 때는 서너 칸만 뽑았다. 친구들한테까지 훈계를 했으니 좀 유별난 정도였다.

바른 생활 어린이였던 나는 이제 불량 어른이다. 횡단보도 아닌 데서 막 길을 건너고 휴지를 평평 뽑아 쓴다. 거대하고 탄탄한 세상은 ‘나 하나’의 먼지 같은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깨달음 혹은 믿음에 내 안에 자라났다. 자랑스러운 고백은 아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테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 피어/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시인이 꼬집듯이 ‘나 하나’로는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무력함이 시민들을 지배한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선부른 이상주의로 멸시당하는 게 최근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 하나 물들어/산이 달라지겠느냐고/말하지 말아라’고 시인은 잘라 말한다. 꽃 한 송이, 단풍잎 한 장처럼 미약해 보이는 ‘하나 하나’가 모여 꽃밭과 울긋불긋한 산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 대한 인식은 각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으며 그 시작은 내게서 비롯된다는 것, 어릴 적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단순한 민주주의 진리를 시인은 전하고 있다.

망설임 없는 시인의 목소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냉소와 비관을 따라 온 내게 오래 울림을 남겼다. ‘나 하나’의 마음이란 들꽃 한 송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는 가냘픈 것이다. 그렇게 약한 만큼 역설적으로 ‘나 하나’의 행동은 소중한 여겨져야 한다. ‘나 하나’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다. 나부터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 아니겠는가. ㉞

글 김여련(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영화 속 정치

자크 루이 다비드,
<마라의 죽음>



영화 속 선거를 만나다

<영화 맨 오브 더 이어
(Man Of The Year, 2006)>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된다면?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Beautiful day

QR코드를
스캔하면 보여요!

오늘의 선거역사가 궁금해

‘칠레의 어머니’
미첼 바첼레트



1997년 5월 1일 영국 총선,
토니 블레어와 “제3의 길”



멕시코 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든다



프랑스의 7월 혁명,
투표권을 위한 그들의 투쟁



선거법 사건텔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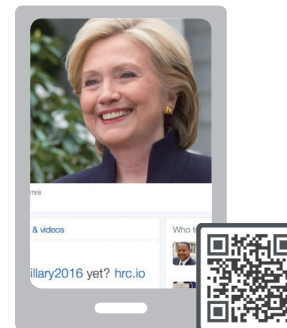
“공짜 밥은 없다.”



민주주의 고사시키는
‘물지 마’ 당원가입



선거 속 컬러 전쟁



지금 미국의
달력은 1992년?



선거관리위원회 방방곡곡 스토리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마지막 재보궐선거,
내가 투표사무원!



시선을 확!
끄는 선거포스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해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선생님께서 배우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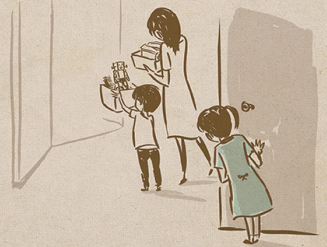


부모님의 성향을 따라갈지 말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수 없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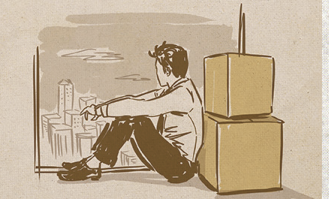


옆집에 누가 이사 올지



어떤 상사를 만나게 될지

옆집에 이사 온 아이와 친구가 될지 말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떠날지 말지

딸바보 아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선택할 수 있는 것



'딸바보가 그렸어'가 궁금해요!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세상 그리기, '딸바보가 그렸어' 철없는 남편에서 딸바보 아빠가 되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4년간의 기록을 남긴 육아 에세이로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등의 SNS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작업물을 모아 발행한 단행본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늙어가게 될지 내 아이가 어떤 곳에서 자라게 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갈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1984년 8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력을 잃은 선거

유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던 영국인 소년이 흑인들과 교감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투쟁에 힘 하나를 보태겠다고 다짐하던 내용의 영화다. 흑인 배우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모건 프리먼이 소년에게 영감을 주는 흑인으로 등장했던 이 영화에서 영국인 소년이 남아공의 백인 소년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그 백인 소년들은 끝내 영국에 정복당하긴 했으나 두 번에 걸친 보어 전쟁으로 세계 최강 대영제국의 군대를 단단히 골탕먹었던 보어인들이었다. 네덜란드 이민의 후예인 보어인들은 1910년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해 나가게 되는데 이들을 주축으로 한 정당이 바로 남아공 국민당이다.



영화 <파워 오브 원>에서 보듯 보어인들은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고, 국민당은 틈날 때마다 인종차별적 정책을 양산해 냈다. 인종 문제에 조금은 온정적이었던 영국계가 중심이 된 연립당과 양당제가 형성되어 연립당이 세력을 유지했을 때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감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48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를 거둔 뒤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남아공은 본격적인 인종 분리, 즉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후 남아공의 역사는 말 그대로 페이지마다 피비린내 그득하고, 장을 넘길 때마다 거친 비명과 욕설 소리가 넘쳐난다. 역사에 굵은 핏방울로 남은 학살 사건만 해도 열손가락을 넘기지만 그중에서도 1960년 사프빌 학살과 1976년 소웨토 학살은 참혹함이 절정을 이룬다.

1960년 흑인 지도자 망갈리소 소부크웨는 흑인의 거주와 통행 자유를 제한한 통행법에 반대하자고 호소한다. 정부가 흑인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라고 한 통행증명서를 반납하지는 것이었다. 폭동이라기보다는 항의 시위 정도의 행진. 그런데 군중 쪽에서 돌이 날아들었고(경찰 측 주장), 엉겁결에 경찰이 총을 쏘면서 학살이 시작됐다. 엉겁결에 시작된 사격은 달아나는 군중의 등을 향해 2분 동안이나 계속됐고 결국 69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만행에 영국 정부가 격노하여 남아공 정부에 항의하자 남아공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연방을 탈퇴해 버린다. 이때 남아공 총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화강암처럼 버틸 것이다.”

“**민의를 정당한 표출인 선거는
그만큼의 권위와 힘을 지니지만 지배
권력의 이익과 구미에 영합한 선거는 결국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1984년에 치러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거가 그 증거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혐오로 돌돌 뭉친 인종주의의 화강암은 더욱 단단하고 굳어져 갔다. 흑인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되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고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당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까지도 모욕받아야 했다. 1976년 남아공 정부는 흑인 학교에서 자신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칠 것을 명령했다. “이 언어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의 흑인들이 들끓는 가운데 소웨토라는 도시의 흑인 학생들은 항의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사태는 흑인 사회를 격동시켰다. 심지어 백인 시민들까지 정부의 잔인한 진압에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고 소요는 남아공 전역으로 확대됐다. <백색의 계절(A Dry White Season, 1989)>, <자유의 절규(Cry Freedom, 1987)>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과 그에 맞선 투쟁을 그린 영화는 대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남아공 정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니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소웨토 사태를 겪은 뒤 새로 대통령이 된 보타는 “인종차별은 영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듯했지만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허울 좋은 선거가 1984년 8월 22일 실시됐다.

자신의 권리에 눈뜬 사람들
1983년 남아공 정부와 의회는 백인 일색이던 의회의 문호를 열어 유색인종(혼혈 등)과 인도인의 3원제 의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지만 여기에는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흑인이 배제돼 있었다. 즉 인도인 등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면서 흑인의 저항을 약화시켜 보려는 공수였고, 대외적으로 남아공이 변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술수에 불과한 선거였다. 남아공 내 흑인과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당연히 이에 격렬히 항의하고 나섰다. 3원제 의회가 선포되기는 했으나 백인 의석이 178석인데 비해 유색인 의회는 80석, 인도인 의회는 49석으로 구성된 기형적인 의회 구조였다. 일부 양보는 하되 백인 지배 체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선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색인의 64.8%가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그 가운데 29.5%만이 투표를 했고 전체 유권자로 보면 19%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1984년 8월 29일 자 경향신문). 유색인종이 주로 거주한



케이프 페닌슐라의 경우 투표율이 4%에도 미치지 못했고 최고 투표율이 불과 48%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흑인의 저항은 점차 격렬해졌다. 이 3원제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피터르 빌렘 보타였다. 개헌을 통해 실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고수하며 흑인의 소요를 잔인하게 진압했지만 이미 스스로의 권리에 눈 뜬 흑인과 국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그의 정부를 점차 고립시켰다. 그해 말 흑인으로서 인권 운동을 앞장서 펼친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그 절정에 해당했다. 투투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이 상은 보금자리를 산산이 파괴당한 채 수용소에서 비에 젖은 매트에 앉아 우는 아이를 달래며 지은 죄라고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의 것입니다. 이 상은 마치 쓰레기처럼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이 땅의 350만 흑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상은 우리들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것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수차례나 투투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다 했고 국제적 경제 봉쇄를 부른 투투 주교의 언동을 두고 미국노라 부르며 언성을 높였지만 그뿐이었다. 일부 유색인종과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의를 정당한 표출이라 할 선거는 그만큼의 권위와 힘을 지니지만 지배 권력의 이익과 구미에 영합하기 위한 선거는 결국 그 생명력을 삼시간에 잃는다. 1984년 8월 22일의 남아공 선거는 이를 여실히 입증한 선거였다. 이로부터 10년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다인종 자유선거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㉟

필진 김형민 PD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이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산하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역사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글을 엮어 ‘그들이 살았던 오늘’의 제목으로 책을 냈다. 현재 sbcsnbc에서 PD로 활동 중이다.